



여덟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시간표

[풋대를 향하여② 미주2]

김창연, 김화선 선교사님께



브라질은 지금 가을로 접어들었지요? 한국과 정반대 위치에 있는 브라질 땅에 계신 두 분을 생각하며 편지글을 올립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기 몇 개월

전에 한동홀 BEE 기도모임 미주 테이블에서 두 분을 처음 뵈었습니다. 많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BEE Korea에 오셨고 BEE 과목들을 본부에서 속성으로 세미나를 받으셨지요.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비대면 상황이 왔고 두 분을 더 뵈지 못할 것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두 분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FTS까지 마치시고 코로나19가 더 심해지기 직전에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셨지요. 작년 7월 두 분의 브라질 입성이 기억납니다. 지연이 반복되면서 일대일 첫 세미나가 연기되며 입국에 난항이 있었지요. 그런데도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 7월부터 14번의 일대일과 갈라디아서 세미나를 두 분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영적 부흥이 있는 곳에 사탄의 시기가 있었지만, 브라질의 BEE 사역은 멋지게 안착했다고 생각합니다. 남미 대륙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 넓은 브라질 땅을 시작으로 복음주의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남미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합니다.

한국에서 수술받은 팔의 철심을 제거하기 위해 이제 곧 한국에 오실 두 분을 기다립니다.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차도 마시면서 이 땅을 아름답게 사시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정분 권사 드림



사랑하는 김성주, 정진영 선교사님!



상도동 BEE 사무실에서 훈련 받으시고 차근차근 선교사로서 준비하시고 선교지로 떠난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진영 선교사님과 은찬이도 함께

있으니 참으로 안정적인 가정의 모습에 마음이 놓입니다. 브라질과 한국에서 두 분과 가족들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할 때, 모든 중보 기도자들이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얼마나 두 분이 소중한지를 실감했습니다. 브라질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가슴 벅차다고 하시며 선교지에 대한 꿈을 가슴에 품고 다녔던 선교사님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말해주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토록 귀한 BEE 사역들이 확장되어가는 꿈을 꾸어 봅니다. 브라질에서의 낯선 환경과 언어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떠나셨는데 환경탐색과 적응을 조금씩 해가며 구체적인 선교 계획대로 잘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김성주 선교사님! 브라질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는 깊은 영성을 가진 선교사님!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기를 즐겨하는 겸손한 선교사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거처와 은찬이가 다닐 학교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동역하시는 두 분 어머니들이 건강하게 치유되어서 이 힘들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비자 서류 절차가 순전히 진행되고 포르투갈어를 배우는 즐거움으로 현지인과의 만남과 교제 안에서 기쁨이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정진영 선교사님! 아름다우신 마음속에 그토록 꿈꾸었던 선교지에서 하나씩 꿈을 이루어가며, 가정 안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신경진 목사 드림



열정이 넘치는 **박재현** 선교사님께!



선교사님께서는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 선교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을 서빙고 금요집회에서 강한 확신 하게 되었고, 파송교회와

단체를 찾는 기도를 할 때도 5명 남짓의 작은 기도 모임에서 처음 듣는 미국 LA의 한인 선교단체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연결이 되었지요. 콜롬비아를 선교지로 정할 때도 중남미에서 콜롬비아에 한인 선교사가 인구 대비 가장 적다(7가정 남짓/5천만 인구)는 것을 알고 정했습니다.

선교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정한 사역지 라과히라를 선택할 때는 주님이 3번 sign을 주셨다고 하셨지요. 그중 하나는 카리브에 인접한 작은 바닷가 저편 땅에서 누군가 지계를 지고 오는데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선교사님 혼자였는데 가까이 보니 과일을 조금 팔아 보려고 사막을 가로질러 오는 요엘이라는 작은 아이를 본 장면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라과히라'에 도착해 작은 인디언 시골 마을을 걷는데 멀리서 3세 남짓의 여아가 한 손에는 큰 수건, 또 한 손에는 물통을 들고 흙물 샘으로 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을 때 "너를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성령의 생수를 저들에게 주고 싶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 음성을 듣고 눈물이 났다고 하셨

습니다. 그곳에서 2년간의 기도로 사역의 확신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차, 월셋집, 생활 도구, 학교 부지, 건축비가 모두 채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라구?' 사역이 7명 대상으로 4월부터 시작했고 '라구?'를 잘 정착시킨 후 목회자 대상 BEE 세미나에 들어갈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의 꿈인 학교를 지으면서 교육과 말씀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그곳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선교사님을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신경진 목사 드림



박지웅 선교사님께!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마4:12-13)

수년 전 마태가 기록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하신 일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는 것에서 선교의 일단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한 기적을 행하고, 대단한 사역의 열매를 만들고,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릴 수 있는 능력이 선교가 아니라 "거기 가서 사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곳에서 박지웅 선교사님은 그야말로 그 말씀처럼 브라질에 가서 사시는 아저씨인 임을 발견 하였습니다. BEE Korea 사역은 말씀 사역인데, 지금까지 인도자로서 사역을 하지 않으면서도 김창연 선교사님과 협력하여 브라질의 네트워크를 BEE의 사역에 아낌없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범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역에 열매가 얼마나 클까 하고 생각하며, 김성주 선교사님과의 동역도 참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도 1/4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3개월여 동안 새로운 미주2 테이블 식구들은 팀장님, 부팀장님과 함께 친근한 동역의 끈을 만들었습니다. 브라질 목사님들과 함께 한국에 들어오는 일(4월 29일-5월 5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며 많은 걱정과 압력을 혼자 짊어지시고 소화불량까지 생겼다고... 귀한 동역자들이 우리 테이블에 있으니 함께 나누어서 지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전진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브라질에서 사시면서 제자 삼는 긴 사역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극상품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박기성 목사 드림 

[정리: 김종영 편집: 최선]

그림 속 His-story



수태고지

(프라 안젤리코, 1425년경, 패널화, 마드리드 국립 프라도 미술관)

초기 르네상스 화가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는 가브리엘 천사(왼쪽)가 동정녀 마리아(오른쪽)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알려주는 장면을 묘사한 작품이다. 작품의 왼쪽 상단에 작게 그려진, 에덴동산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하와를 그려 넣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암시적으로 알려준다. 마리아의 기도하는 자세와 무릎 위에 놓인 성서는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다. 방의 모습은 르네상스 시대에 발견한 선 원근법을 사용하여 공간감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하단의 작은 그림들은 마리아의 생애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 즉 마리아의 탄생과 혼인,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 방문, 동방박사의 경배, 예수를 성전에 봉헌함, 마리아의 죽음을 그리고 있다.

BEE 소식

1. 2022년 “일상을 넘어 쫓대를 향하여”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BEE 가족을 축하합니다.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3:14).”
2. 꽃피는 아름다운 봄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국내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함께 봄날 만찬을 나누어봄이 어떨지요? 본부로 연락하시면 선교사님의 근황과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3. 4월 16일(토) 6:30, 토요 기도모임은 Google Meet로 진행하였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흰색 또는 붉은색의 상의를 입고, 국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현지 선교사님과 BEE 가족 110여 명이 함께 기도하며 축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